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4, pp. 111-125,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111

한국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고찰을 통한 웰다잉(well-dying)과 웰에이징(well-aging) 연구

박아르마[1], 송현동[2], 권 온[3], 김광환[4*]
[1]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조교수, [2]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3]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전임연구원, [4]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A study of well-dying and well-aging through consideration of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social community

Arma Park[1], Hyeon-Dong Song[2], On Kwon[3], Kwang-Hwan Kim[4*]
[1]Assistant Professor, Humanity College, Konya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Hotel & Tourism, Konyang University
[3]Full-Time Researcher, 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4]Professor,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동체 관련 요소 9개 곧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웰에이징, 웰다잉의 관련성을 밝혀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 항목 9개에 관한 유의미한 접근을 시도한 2016년~2021년에 발행된 논문 45편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5건의 사례 중에서 조선시대와 연결되는 경우가 22건, 현대사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15건이었다. 또한 삶과 죽음의 대비적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9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삶과 결속되었고 3개 항목은 죽음과 삶을 포괄하였다. 그리고 웰에이징,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A유형~D유형으로 구체화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융복합적 시각을 차용하여 우리 사회가 호혜와 연대의 원리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모두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삶, 죽음, 호혜, 연대, 사회통합,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historically examined nine representative community-related elements such as Hyangyak, Doore, Pumassi, Dongje, Gwallye, Wedding, Funeral, Ancestral Rites, Saemaul Undong, etc. in our society. This study aimed to create a better Korean society 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aging and well-dying.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45 recent papers published between 2016 and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ut of 45 cases, 22 cases are connected to the Joseon Dynasty, and 15 cases are related to modern society. When divided into life and death, 6 out of 9 items were bound to life, and 3 items encompassed life and death. An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aging and well-dying, it was specified as Type A-D. In conclusion, this study allows our societ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share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solidarity. This study can contribute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to becoming a true community that can share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Key Words : Life, Death, Reciprocity, Solidarity, Social Integration, Converg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kh@konyang.ac.kr)
Received February 16, 2022 Revised March 30,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역사[歷史, history]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인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과 웰에이징(well-aging) 및 웰다잉(well-dying)의 상호 관련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역사는 인류 사회의 발전이나 변천 또는 흥망의 과정이자 그것의 기록이다. 역사에는 대개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담겨 있다. 인간 사회에는 새롭고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이와 같은 일들 또는 사건들이 생겼다가 사라짐으로써 사회는 늘 움직이고 변화한다. 웰에이징은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또한 웰다잉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웰에이징, 웰다잉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이들 개념이나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역사와 웰에이징, 웰다잉은 인간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웰에이징, 웰다잉의 관련성 또는 상동성(相同性)을 밝힐 것이다. 역사와 웰에이징, 웰다잉은 모두 인간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지향한다. 우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영역으로서의 역사와 웰에이징, 웰다잉에 집중함으로써 서로 무관하게 여겨졌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역사가 웰에이징, 웰다잉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도 미학적인 메커니즘(mechanism)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복원하려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歷史學, study of history)에 주목한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과거 사례들을 통해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이다. 과거 사회는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으며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을 구해왔는가를 되짚어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역사적 탐구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연결된다. 종합하면 역사학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학문이다[1].

역사학의 대상은 역사라는 이름의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에 위치하기에 이를 한 편의 논문 또는 연구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웰에이징, 웰다잉과 접목될 수 있는 역사, 특히 한국 역사에 집중할 것이다. 역사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사회를 향한 유의미한 기록에 있다고 할 때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용어, 의례, 사건 등을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동체(共同體)는 생활, 행동, 목적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인간의 본질 의사에 의해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를 가리킨다. 한국사회 공동체는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다양한 층위의 집단이나 사회를 일컫는다.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한국사회 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로는 퇴계의 향약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자치조직을 연구한 경우[2]와 조선 후기 두레 공동체에 나타난 평화적 성격을 고찰한 경우[3] 등이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과 연결된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향한 가치를 추구해왔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의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더 좋은 삶으로서의 웰에이징과 더 나은 죽음으로서의 웰다잉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자연스럽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동체 관련 요소를 특정 시대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고찰하였고 웰에이징이나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지도 않았다. 반면 본 연구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통합하는 관점을 취하고 웰에이징이나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역사와 웰에이징, 웰다잉의 관련성 또는 상동성 측면에서 주목하려는 공동체 관련 요소들은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혼상제, 새마을운동 등이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역사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고찰하며 이를 웰에이징, 웰다잉 요소와 연계하여 더 나은 삶의 질[4]을 확보하고 더욱 발전된 한국 사회[5]를 만들려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역사와 웰에이징, 웰다잉의 관련성 또는 상동성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또는 분석대상은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공동체 관련 요소로서 웰에이징, 웰다잉과 관련성을 맺는다. 한국 역사 속의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곧 제도, 용어, 의례, 사건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혼상제(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 9개(관혼상제에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각각 개별적으로 간주하면 9개이다) 항목이고 이들 공동체 관련 요소에는 공통적으로 웰에이징 또는 웰다잉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조사대상 관련 추가 서술은 다음과 같다. 곧 향약의 성격은 규약, 제도에 연결된다. 두레와 품앗이의 성격은 용어, 사회와 연결된다. 동제의 성격은 용어, 의식 행사와 연결된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성격은 의식 행사와 사회에 연결된다. 새마을운동의 성격은 사건, 사회에 연결된다. 간단한 개요는 Table 1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Community-Related Elements in Korean History(Korean Society)

Item	Nature
Hyangyak	Rule, System
Doore	Term, Society
Pumassi	Term, Society
Dongje	Term, Ritual
Gwallye	Ritual, Society
Wedding	Ritual, Society
Funeral	Ritual, Society
Ancestral Rites	Ritual, Society
Saemaul Undong	Event, Society

2.2 조사방법

조사방법 또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역사 속의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곧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을 조사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각 항목에 관한 유의미한 최근 논문들을 취합하였다. 9개 항목에 관련된 최신 성과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삶과 죽음의 양상을 용이하게 고찰할 수 있다. 공동체 관련 논문들을 선택한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을 활용하였다. 저자는 KCI 통합검색에 공동체 관련 항목 9개 곧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등을 '발행일순'—'내림차순' 조건으로 입력(2021년 1월 1일 기준)하여 최근 시기 논문 45편의 정보를 뽑았다. 이어서 추출한 논문들의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DBpia(누리미디어),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스콜라(SCHOLAR), KCI,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관련 요소의 개념이나 본질 또는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2016년~2021년에 발행된 최신 논문 45편을 선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핵심과 역사(시대)의 관련성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 연결된 최근 논문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일차적으로 공동체 관련 요소들 또는 항목들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요소 또는 항목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시대를 함께 제시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검함으로써 본 연구는 역사학의 가치 또는 교훈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 9개 항목의 핵심을 추출하고 이를 역사의 매듭 또는 특정 시기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오늘의 시점에서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무의미한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생생한 현재의 순간에 해당하는 일이자 미래를 예감하고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한다. 우리의 작업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선 향약, 두레, 품앗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향약(鄕約)의 핵심을 공동체 관점에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향약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인(仁)의 공동체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의 근원에는 유교 질서가 위치한다. 유교 질서는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고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향약은 향촌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상호부조와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주입하여 공동체의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인륜도덕을 확인하고 인간 됨됨이를 높여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농민 또는 백성의 행복을 지향하는 규약, 제도가 향약이기도 하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of Community Elements and History(Era) 1

N	Hyangyak		Doore		Pumassi	
	History	Core	History	Core	History	Core
1	18th Century Joseon	Reciprocity, Mutual Assistance, Solidarity[6]	In the late Joseon (after the 17th Century)	Rice Farming, Labor Organization, Dae-Dong Society[11]	Agricultural Age	Manpower Interchange, Equality Awareness, Collective Heung[16]
2	19th Century Joseon	Edification of Customs, Confucian order[7]	Japanese Colonial Era	Rice Farming, Working Community, Organic Sense of Solidarity[12]	Ancient Times	Labor Exchange, Social Integration, Solidarity of Community[17]
3	16th Century Joseon	Local Confucianism, Love of People, Public Moral[8]	In the late Joseon (after the 17th Century)	Play Community, Ritual Community, Community-Based Wellbeing[13]	Today (2017)	Farming Community, Labor, Food Preparation[18]
4	China in the 1930s	Rural Autonomy, Rural Governance[9]	In the late Joseon (after the 17th Century)	Social Cohesion, Community Interest, Social Value[14]	In the Late Joseon (after the 17th Century)	Affection, Rural Community, Mutual Help[19]
5	17th Century Joseon	Ethics and Morality, Local Talent Education[10]	In the 1950s	Play, Ritual, Right[15]	Modern Society(1945~)	Principle of Dependency, Principle of Benefit, Principle of Individuality[20]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of Community Elements and History(Era) 2

N	Dongje		Gwallye		Wedding	
	History	Core	History	Core	History	Core
1	Today (Modern Society, 1987, 2007)	Georije, Folk Religion, Ghosts[24]	19th Century Joseon	Jeong Yak-yong, Criticizing Customs of the Era[29]	16th Century Joseon(the Reign of King Jungjong)	Royal Wedding, Taking the Bride to Broom's House after Marriage[34]
2	In 2013, China (Korean-Chinese Village)	Korean-Chinese , Koreans, Cultural Resource[25]	18th Century Joseon	Sungho Lee-Ik, Practical Ritual, Seoingarye[30]	Joseon Dynasty	Succession to the Throne, Jujagarye[35]
3	Today (2018)	Sansinje, Goddess, Collective Unconscious[26]	After the Mid-Joseon (16th Century~), Japanese Colonial Era	Gwallye Haengrye, Gwanja[31]	17th Century Joseon, 19th Century Joseon	Princess, Booma[36]
4	Today (Modern Society, 1970s, 2018)	Village Community Folklore, Old Customs of the Status System[27]	20th Century Joseon	Korean Empire, Crown Prince, Crown Princess[32]	Today (Modern society, 2010s)	Confucian Wedding, Commercial Wedding Hall, Minimony[37]
5	Today (2018)	Symbolism, Sacredness, Community[28]	Jose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Haminjae Jeong Guk-chae, World of Yehak, Studies on Traditional Ceremonial Occasions[33]	1948~Today (Modern Society, North Korea in the 2010s)	North Korean Wedding, Keunsang Culture, Ethnic Tradition[38]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 중 하나인 향약은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16세기 조선, 17세기 조선, 18세기 조선, 19세기 조선 등 16세기~19세기의 조선 시대에 두루 통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향약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1930년대 중국에서 농촌 자치와 농촌 개량의 원동력으로서 향약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 중국[21-23]의 농민들 또는 향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개설된 향약이 지방공동사회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2020년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두레의 핵심을 공동체 관점에서 찾는 경향성이 있다. 두레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노동 공동체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의 배후에는 벼농사 문화가 있다. 두레를 활용한 마을은 공동 노동으로 벼농사를 수행함으로써 전통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로서의 유기적인 연대감을 향상할 수 있다. 두레는 또한 놀이 공동체이자 의례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보여준다. 두레에서의 노동은 의무로서의 노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포함하는,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놀이이자 의례이며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두레는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17세기 이후의 조선시대에 두루 쓰였음이 확인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20세기 이후에도 두레가 이 땅에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곧 두레는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이다.

최근 연구와 논문에서는 품앗이의 핵심을 공동체 관점에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품앗이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농촌 공동체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교환에 의한 공동 작업으로 작동한다. 상대성 또는 상호성 원리에 의한 인력 교환은 공동체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한다. 품앗이에서 호혜성 또는 호혜적 교환 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한다. 품앗이가 추구하는 정(情) 또는 집단의 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자 가치일 수 있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품앗이는 역사 또는 시대의 스펙트럼이 매우 광활하다. 그것은 원시시대의 부족 사회는 물론이고 농경 시대의 고대 사회를 포괄하며 17세기 이후의 조선시대에도 등장한다. 놀라운 점은 오늘날에도 우리 땅에서는 품앗이 전통이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동제, 관례, 혼례를 도식화하면 상기(上記)한 Table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동제(洞祭)의 핵심을 민속(民俗) 관점에서 찾는 경향성이 있다. 동제가 추구하는 민속은 마을 공동체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승(傳承)이나 전통(傳統)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산, 바다, 도시, 거리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제는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것은 또한 문화 자원으로서, 문화 축제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동제가 품고 있는 상징성, 신성성, 공동체성, 생산성 등 다채로운 속성은 신(神)과 인간 영역을 포괄하고 죽음과 삶을 아우른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동제는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부족국가가 형성되었던 상고 시대부터 1970년대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제가 발생한 시간적 범위는 대단히 방대하다. 특히 2010년대 중국 두만강 유역 재중동포 마을에서 발생한 동제 관련 논의는 신선하게 다가온다. 동제는 우리 민족에게 국경을 초월한 문제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관례(冠禮)의 핵심을 예학(禮學) 관점에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관례가 추구하는 예학은 시속(時俗) 비판과 경세(經世) 지향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교 의례(儀禮)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약용, 이익, 정국채 등 다수의 유학자들은 예학 또는 의례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관례는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16세기 이후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두루 쓰였음이 확인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 등 20세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 땅에서 관례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의 입장에서 관례의 개념, 실제, 의의 등을 파악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혼례(婚禮)의 핵심을 왕실 사례에서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다. 왕실 혼례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는 『주자가례』나 『국조오례의』 등의 문헌이 있다. 전자(前者)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자 주희가 예절에 관해 저술한 책을 가리키고 후자(後者)는 조선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행사와 의식에 관해 저술한 책을 지시한다. 혼례 관련하여 남녀 역할에 기반을 둔 친영례(親迎禮)나 묘현례(廟見禮) 등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혼례는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유구한 시간의 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혼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16세기, 17세기, 19세기 등 다양한 시기의 조선시대에 왕실 혼례가 폭넓게 실

행되었음을 파악하였다. 기억할 것은 1948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기간에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혼례 양상이다. 최근 대한민국 혼례는 민족 전통으로서의 유교식 혼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 혼례는 큰상 문화를 포함한 전통 방식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을 도식화하면 다음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상례(喪禮)의 핵심을 통과의례(通過儀禮)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상례가 속한 통과 의례는 인간이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중요한 의식을 일컫는다. 특히 삶의 마무리로서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례가 갖은 의의는 긴요하다. 조선시대에 왕실(王室)이나 사대부(士大夫) 가문에서 진행된 상례는 흉례(凶禮)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지내는 다섯 가지 의례인 오례(五禮)에 속한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상례는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16세기 조선, 17세기 조선, 18세기 조선, 19세기 조선 등 16세기~19세기의 조선시대에 두루 통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상례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로서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억해야 할 바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상례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서의 죽음이 적절한 애도(哀悼) 없이 흘러간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제례(祭禮)의 핵심을 다양한 관점에서 찾는 경향성이 있다. 곧 『주자가례』 등의 문헌에 근거한 유교 의례로서의 조상 제례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교나 무속 등의 영향력을 포괄한다. 곧 여러 종교나 신앙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여 죽음의 문화적 가치를 도출하고 신(神)이나 산신(山神)을 향한 공양(供養)이자 제의(祭儀)로서 이해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제례는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백제가 있었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제례가 실행된 시간적 범위는 대단히 방대하다. 한국인은 이 땅에서 지극히 오랜 시간 동안 제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이기에 늘 초자연적인 절대자나 신 또는 신적인 대상을 찾았고 그러한 열망의 소산이 제사(祭祀) 또는 제례일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of Community Elements and History(Era) 3

N	Funeral		Ancestral Rites		Saemaul Undong	
	History	Core	History	Core	History	Core
1	Today (2019-2021)	Covid-19, Mourn-less Death, Human Dignity[39]	17th century Joseon~ Today (2021)	Mountain Ritual, Joseon Dynasty, Sacrifice, Altar[44]	Today, Africa in 1992-2010s.	African Missionary Work,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Culture, Saemaul Undong[49]
2	The 17th to 18th Centuries of Joseon	Ancestral Farewell Rite, Supplementary Compendium on State Funerary Rites, Funerary Rite[40]	Joseon Dynasty~ Today (2021)	Bulchunwee Rites, Ancestral Rites, Confucian Rites[45]	Today, 1970s	Farming Education, Resource Management, Mental Education[50]
3	19th Century Joseon	Tasan Jeong Yak-yong, Gasungung Sangyemundap, King Sunjo, Mourning System[41]	The Three Kingdoms Period~ Today (2021)	Death Rite, Shamanism, Confucianism, Buddhism[46]	Today (2010s), Asia, Africa, etc.	Development Aid, Development Anthropology, Culture Critique[51]
4	16th Century Joseon	LeeMungeon, Mukjae's Diary, Regulation-on-Behavio r-During-Funerals[42]	17th Century Joseon	Son Cheo-nul, Modang Journals, Ki-Jesa[47]	Today, China from 1990s to 2020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Rural Revitalization[52]
5	16th Century Joseon	Jang Hyeon-Kwang,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 Pinanrok[43]	The Three Kingdoms Period (Baekje)	Naegwan, Yeogwan,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Funeral Ritual Formalities[48]	Today (2005-2021), Asia, Africa, etc.	Gyeongsangbuk-do, Globalization, Networking[53]

최근 연구 또는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핵심을 국제화나 세계화 또는 원조(援助)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곧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 위치한 다수의 최빈국이나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 전파되는 양상을 탐색한다. 새마을운동의 외국 전파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문화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 새마을운동은 한글이나 태권도 등과 함께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미적(美的) 요소[54]이자 문화적 요소로서 기능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한국형 원조에 내재된 문화적 특성을 파악한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하나인 새마을운동은 역사 또는 시대의 관점에서 1970년대 이후 이 땅에서 추진된 농촌개발 또는 지역사회개발의 좋은 사례(事例)이다. 놀라운 것은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의 영향력이 국내에 제한되지 않고 국외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속하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성공적인 선례(先例)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 역사의 관련성을 고찰한 3장 1절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연구 45건을 중심으로 파악한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 9개 항목을 시대적으로 구획해 보니 상대~오늘날)에서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45건의 사례 중에서 14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와 결정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22건, 1945년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사회와 주로 관련되는 경우가 15건이다.

3.2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 삶, 죽음 그리고 웰에이징, 웰다잉의 관련성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삶과 죽음의 대비적 구획에 의한 것이다. 곧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 9개 항목을 삶과 죽음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파악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삶을 긴요하고 결정적인 과정의 연속으로서 이해한다면 삶과 죽음의 대비적인 구획은 유의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순화한 구분은 인류의 본질을 파악하는 유효한 접근 방법이다. 한국 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 중 다수는 삶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향약, 두레, 품앗이, 관례, 혼례, 새마을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동제와 상례와 제례는 우선적으로 죽음과 긴밀하게 결속되는 동시에 삶을 향한 지향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 곧 이들 요소는 특이하게도 삶과 죽음이라는 양 측면과 견고하게 연동되어 있다. 삶과 죽음의 대비적 구획에 의한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 Table 5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 5. Community-Related Elements Based on the Contrast between Life and Death

Item	The Decisive Aspect of Life	
	Life	Death
Hyangyak	O	
Doore	O	
Pumassi	O	
Dongje	O	O
Gwallye	O	
Wedding	O	
Funeral	O	O
Ancestral Rites	O	O
Saemaul Undong	O	

본 연구는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웰에이징 또는 웰다잉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상호 관련성 도출을 지향한다. 이는 위에서 도출한 삶과 죽음의 대비적 구획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곧 삶의 양상은 웰에이징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죽음 양상은 웰다잉 영역과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웰에이징은 인간이 노화에 의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등을 유지하며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웰에이징을 위한 조건으로는 신체적·정서적 건강, 경제적인 독립과 여가활동, 의미 있는 사회활동(봉사활동), 직업(일) 등이 제시되었고 특히 웰에이징의 필수요소로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었다[55].

웰에이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웰에이징의 4대 요소는 건강, 인간관계, 경제력, 일이다. 여기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또한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는 자아실현의 통로이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아이덴티티를 느낀다.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기고 오히려 건강도 유지된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 그리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56]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죽음을 잘 맞이하여 한 개인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잘 사는 것(well-being)이 중요하지만 어쩌면 잘 죽는 것(well-dying)이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웰다잉이란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좋은 죽음을 말하며 잘 죽어가는, 행복하게 죽는 것, 거룩하게 죽어가도록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7].

웰다잉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신체적 요인에서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웰다잉이 높았고, 심리적 요인에서는 스트레스 조절, 자기효능감 등이 웰다잉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및 가족 지지,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등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받는 죽음에 대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해줌으로써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58].

상기한 웰에이징과 웰다잉은 공통적으로 신체적 측면, 심리적(정서적) 측면, 사회적(경제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 웰에이징 또는 웰다잉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Well-Aging and Well-Dying and Community-Related Factors

Item	Type	Well-aging			Well-dying		
		Physical aspects	Psychological Aspects	Social (Economic) aspects	Physical aspects	Psychological Aspects	Social (Economic) aspects
Hyangyak	A		Good and Laudable Custom	Mutual Aid, Reciprocity, Solidarity			
Doore	B	Working Community, Play community	Communitarianism , Subjective Well-being	Community Interest, Community-Based Wellbeing			
Pumassi	B	Labor Exchange, Collaboration	Collective Heung, Emotional Ties, Affection	Social Integration, Solidarity of Community, Principle of Benefit			
Dongje	C		Wishes for Life, Seasonal Customs, Village Community Folklore	Cultural Resource, Culture Festival, Socioeconomic Changes	Georije, Sansinje	Ghosts, Goddess, Sacredness	
Gwallye	A		World of Yehak	Criticizing Customs of the Era, Practical Ritual			
Wedding	B	Taking the Bride to Broom's House after Marriage, Keunsang Culture	Jujagarye, Confucian Wedding	Commercial Wedding Hall, Minimony			
Funeral	D	The Life of the Elderly	Rite of Passage, Human Dignity, Funerary Rite	Covid-19,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	The Death of the Elderly	Rite of Passage, Human Dignity, Funerary Rite	Covid-19,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
Ancestral Rites	D	Sacrifice, Altar, Ancestral Ritual Food	God, Mountain Spirit, Shamanism, Confucianism, Buddhism	Ancestral Rites, Death Rite, Ki-Jesa	Sacrifice, Altar, Ancestral Ritual Food	God, Mountain Spirit, Shamanism, Confucianism, Buddhism	Ancestral Rites, Death Rite, Ki-Jesa
Saemaul Undong	B	Taekwondo, Hangeul, Farming Education	Mental Education, Donor-centrism , Networking	Internationalization , Globalization, Aid Culture			

1가지 측면보다는 2가지 측면의 충족이 바람직하고, 2가지 측면보다는 3가지 측면의 충족이 개인의 만족도[59]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한 결과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 9개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공동체 관련 9개 요소 또는 항목을 웰에이징 구성 요소들 및 웰다잉 구성 요소들의 핵심 틀과 연결할 수 있다면 역사와 웰에이징, 역사와 웰다잉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 웰에이징, 웰다잉의 관련성을 신체적 측면, 정서적(심리적) 측면, 사회적(경제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틀은 상기(上記)한 Table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 삶, 죽음의 관련성 그리고 웰에이징,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3장 2절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삶, 죽음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웰에이징,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삶과 죽음이라는 대비적 기준으로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구획하였을 때 삶과 강하게 결속되는 항목으로는 향약, 두레, 품앗이, 관례, 혼례, 새마을운동 등 6개가 있다. 반면 동제, 상례, 제례 등 3개 항목은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삶을 향한 지향도 아우른다. 곧 이들 요소는 삶과 죽음이라는 양 측면과 견고하게 연동되어 있다.

다음으로 삶은 웰에이징과 관련성을 맺었고 죽음은 웰다잉과 결속하였다. 특이하게도 공동체 관련 요소들에 내재된 웰에이징과 웰다잉은 신체적 측면, 심리적(정서적) 측면, 사회적(경제적) 측면 등 3개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었다. 향약과 관례의 웰에이징에서는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두드러졌으니 A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레, 품앗이, 혼례, 새마을운동의 웰에이징에서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모두 제시되었으니 B유형으로 규정 가능하다. 동제의 경우 웰에이징에서는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고 웰다잉에서는 신체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였으니 C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례와 제례는 웰에이징과 웰다잉 전 측면을 포함하였으니 D유형으로 규정 가능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 요소와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단초(端初)는 역사와 웰다잉, 웰에이징의 소통 가능성에 있다.

인간 사회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늙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웰에이징,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로서의 웰다잉은 각각 어떤 관점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역사, 웰에이징, 웰다잉은 모두 인간을 매개로 전개된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역사는 웰에이징, 웰다잉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도 미학적인 메커니즘이다. 다만 역사라는 말이 아우르는 의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한 편의 논문과 연구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논의의 초점을 제한해야 했다. 우리는 한국역사에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 공동체 관련 요소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본 연구 이전에 수행되었던 공동체 관련 연구들은 대개 단일한 요소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드물게 2개 이상의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한 선행 연구들의 방향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곧 향약과 두레, 새마을정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비교하고 분석한 경우[60], 농촌의 두레와 어촌의 갱번조직을 주목하여 농촌과 어촌의 전통적 노동공동체를 비교한 경우[61] 등이 해당 사례이다.

본 연구가 위에 거론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공동체 요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2개 이상의 공동체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룬 경우에도 최대 3개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 또는 시대의 흐름 관점에서 종합적인 견해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 9개를 묶어서 역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가 주목한 9개 요소가 포괄하는 시간 스펙트럼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최신 논문 45편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체 요소들은 상고시대, 원시시대, 농경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민족(韓民族)의 유구한 역사와 보폭을 같이 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요소들을 삶과 죽음의 대비적 기준으로 구획한 후 웰에이징,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유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본 연구의 지향성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시도된 바 없는 독창적 시각을 확보하였다. 특히

동제, 상례, 제례 등 3개 요소 또는 항목에서는 죽음과 삶을 함께 고찰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신체적 측면, 심리적(정서적) 측면, 사회적(경제적) 측면 등 3개 기준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후 9개의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4개의 유형 곧 A유형~D유형으로 구체화한 점도 연구의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자원, 문화 축제로서의 공동체와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한국역사 또는 한국사회의 공동체 관련 요소들로는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혼상제(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이 있다. 우리는 9개의 항목들을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관점은 3장 1절에서 활용한 것으로서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핵심과 역사(시대)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둘째 관점은 3장 2절에서 활용한 것으로서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삶, 죽음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웰에이징, 웰다잉과의 관련성을 추출하였다.

공동체 관련 요소들의 핵심과 역사(시대)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역사를 대체로 원시사회(상고시대), 고대사회(삼국시대~통일신라), 중세사회(고려시대), 근세사회(조선시대), 근대사회(20세기 이후 일제강점기), 현대사회(1945년 이후 오늘날) 등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한국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들은 주로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곧 최근 논문 45건의 사례 중에서 조선시대와 연결되는 경우가 22건, 현대사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15건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요소들의 핵심이 조선시대에 형성되었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공동체 요소의 영향력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관련 요소들과 삶, 죽음의 관련성 그리고 웰에이징, 웰다잉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삶과 죽음의 대비적 기준으로 구획하였을 때, 삶과 강하게 결속되는 항목은 향약, 두레, 품앗이, 관례, 혼례, 새마을운동 등 6개이다. 반면 동제, 상례, 제례 등 3개 항목은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삶을 향한 지향도 포함한다. 곧 이들 요소는 삶과 죽음에 견고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삶은 웰에이징과 연결되었고 죽음은 웰다잉과 결속하였다. 공동체 요소들에 내재된 웰에이징과 웰다잉은 신체적 측면, 심리적(정서적) 측면, 사회적(경제적) 측면 등 3개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향약과 관례의 웰에이징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두드러져서 A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두레, 품앗이, 혼례, 새마을운동의 웰에이징에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모두 제시되어서 B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동제의 경우 웰에이징은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고 웰다잉은 신체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므로 C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상례와 제례는 웰에이징과 웰다잉 전 측면을 포함하여서 D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가치는 단순히 학술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020년 벽두(劈頭)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COVID-19)[62-64]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간사회를 긴장, 우울[65-66], 피로[67], 공포, 불안감[68], 정신 건강[69] 악화 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나 의사소통[70]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상대방을 향한 굳건한 믿음도 이전보다 쉽게 흔들리곤 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이 땅에서 생성되었던 또는 여전히 건재한 공동체를, 또 그것의 핵심 요소들을 생각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질문에 타당한 답변을 제시해야겠다는 욕망의 소산이자 의지의 산물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공동체가 필요하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만 있다면, 견디기 힘든 감염병 시대를 조금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사회 공동체 관련 요소 9개 곧 향약, 두레, 품앗이, 동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새마을운동 등에 주목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공동체 요소들의 핵심을 고찰하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일, 또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연결하여 사유하는 일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노인[71]을 비롯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인(仁)과 의(義)의 가치로 흥과 정을 느낄 수 있다면, 또한 공감능력[72]을 향상하고 건강증진 생활양식[73]을 확립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는 조금 더 나은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특정 시기에 추출한 45편의 자료를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호혜와 연대의 원리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웰빙, 복지(福祉)[74]

와 사회적 책임[75]을 달성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고루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자원, 문화 축제로서의 공동체는 물론 더욱 조화로운 사회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K. C. Jou. (2020. October). Self-check in History. *Horizon of Knowledge, 29*, 183.

[2] S. H. Kim. (2020).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Organiz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of Toegye's Hyang-yak(鄕約).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93.* DOI : 10.20539/deadong.2020.93.03

[3] S. K. Choi. (2021). The Study on the Doore as a Peace Community. *Theology and Other Disciplines, 23(2).*

[4] Y. S. Lee & S. G. Kong. (2022). Comparison analysis of quality of life and exercise regularity in the possible sarcopenia group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sarcopenia diagnostic: using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6~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61

[5 Y. T. Kim & S. G. Song. (2022).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ceptability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363

[6] H. Kim. (2021). King Jeongjo'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Seeking Safety and Reciprocity-.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49.* DOI : 10.35638/kjfs..49.202111.001

[7] S. K. Kim. (2021). Policy against Catholicism and Perception on Heterodoxy Rejection Found from Jeokseongbang-Hyangyak-Geumsahak-Jeolmok. *Chiyeok Kwa Yeoksa, 49.* DOI : 10.19120/cy.2021.10.49.331

[8] B. S. Kang. (2021). A Study o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Ideas of Toegye Yi Hwang. *Journal of Eastern Philosophy, 107.* DOI : 10.17299/tsep..107.202108.7

[9] E. J. Choi. (2021). A Study on a Method of Rural Construction by Yang Kaidao in 1930s and 'Chinese Township Regulations'. *Ewha Sahak Yeongu, 62.*

[10] M. J. Kim. (2021). Song Si-yeol's Neo-Confucianism and Social Ideology. *Journal of Yulgok-Studies, 44.* DOI : 10.35436/yulgok.2021.44..235

[11] S. K. Choi. (2021). The Study on the Doore as a Peace Community. *Theology and Other Disciplines, 23(2).*

[12] I. J. Pyo. The Succession and Change of Community: An Experiential Study. *The Journal of Honam Studies, 68.*

[13] J. J. Choi, B. Y. Kim & N. H. Kim. (2020). Exploring key concepts of the homo faber movement in Korea and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Focused on homo faber mindset, community responsib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4(7).* DOI : 10.21298/IJTHR.2020.7.34.7.55

[14] S. H. Lee, J. J. Lee & O. C. Choi.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nity Spirit of Korean Society: Focusing on Hyangyak, Dure and Saemaul Spirit.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23(3).* DOI : 10.18397/kcgr.2019.23.3.113

[15] K. T. Song. (2018). Comparison of Traditional Labor Communiti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cusing on the Dure in Farming Villagesand the Kangbun in Fishing Villag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65.* DOI : 10.38078/ACF.2018.04.65.105

[16] J. H. Lee & M. H. Lee. (2020). Origin of Korean "Heung" for Design through Traditional Play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1(1).* DOI : 10.47294/KSBDA.21.1.33

[17] W. B. Kim. (2018). Moral Emotion and 'Reciprocal Economy'.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21(1).* DOI : 10.17207/jstc.2018.3.21.1.45

[18] J. U. Choi. (2017). The Transmission and Meaning of the Funeral Rites Song in Gangwon-do Province. *Folklore, 35.*

[19] K. H. Kim. (2016). A Study on the Prototype, Transformation and Re-structuration of Human Relationships in the Modernand Contemporary Eras of S.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57.* DOI : 10.17790/kors.2016..57.39

[20] K. M. Lee. (2016).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umasi as a Community

Integration Support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3).*
DOI : 10.24159/joec.2016.22.3.5

[21] S. Y. Hu, Y. C. Sun, Z. R. Li & J. I. Lee. (2022). Analysis on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 of China's Grain Produc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769

[22] X. F. Wang, L. L. Yang & C. J. Yu. (2022). An Empirical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E-commerce Service Qua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732

[23] S. Y. Hu, Y. C. Sun, Z. R. Li & J. I. Lee. (2022). Manufacturing Enterprise, Tourism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Coupling Coordinative in Jilin Province, Chin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679

[24] K. S. Na. (2019). The Characteristics of Dong-je in Jindo Region. *Namdo Folkore, 39.*
DOI : 10.46247/NF.39.5

[25] D. M. Kim. (2019). Dongje of Korean Chinese Villages in the Tumen River Basin -Focusing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Dongje's Creation, Cutting, and Rehabilitation-. *Asian Comparative Folklore, 68.*
DOI : 10.38078/ACF.2019.04.68.9

[26] M. H. Kang. (2018). Actual Conditions and Enjoying Persons' Archetype of the Ritual for mountain spirit at Oeum Mt. in Gangwon Province-focusing on Wolunri-. *Hanminjok Emunhak, 81.*
DOI : 10.31821/HEM.81.6

[27] Y. D. Bae. (2018). The Dissolution of the Old Custom of the Status System in Modern Times and the Discontinuance or Change of Village Community Folklore in Korea -Problem Posing in the Case of Banchon in the Gyeongbuk Area-. *Practice Folklore, 32.*
DOI : 10.35303/spf.2018.08.32.105

[28] J. H. Kim. (2018). A study on the role of fishing village unionabout transmission of fishing folklore andits aspects of continuance and change. *Korean Folklore, 67.*
DOI : 10.21318/TKF.2018.5.67.59

[29] B. Y. Lee. (2021). Jeong Yak-yong's Awareness of Contemporary Customs and National System based on Saryegasik(『四禮家式』). *Journal of Tasan Studies, 38.*

[30] M. J. Doh. (2021). A study on the Sungho Lee-Ik`s Coming-of-age Ceremony & Marriage Ceremony. *Onji Studies, 67.*

[31] M. W. Song. (2021). Changes to Haengrye and Participants' Social Relations in Gwallye in the Yeongnam Region sinceMiddle Joseon. *Korean Cultural Studies, 77.*

[32] B. J. Kim. (2020). The Types and Uses of Hangeul Manuscripts Related to the Crown Prince's Auspicious Ceremon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2.*

[33] J. S. Kim. (2020). A Study on the Traditional coming-of-age ceremony(冠禮) of Haminjae(含忍齋) Jeong Guk-chae(鄭國采).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Heritage, 25.*

[34] K. R. Kim. (2021). Gimyosarim's Reform Theory of Royal Wedding Rituals and "The Ancestral Laws". Korean Studies, 62.

[35] B. J. Shin. (2021). The cases and meanings of royal wedding ceremony in Joseon dynasty. *The Dongguk Historical Society, 71.*
DOI : 10.22912/dgsh.2021..71.85

[36] K. J. Noh. (2021). A Study on the Life of Princesses in Hangul Letters*75 - The Study on the Letters Royal Family Reigns of King Hyojong·King Hyeonjong·King Sukjong and King Sunjo in the 17th to the 19th century. *Korean Studies, 45.*
DOI : 10.36093/ks.2021..45.005

[37] D. M. Kim & H. O. So. (2021). A Study of Component Changes in the Jeogori of Mothers of the Brides and Groo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1(3).*
DOI : 10.7233/jksc.2021.71.3.026

[38] J. K. Kim. (2021). A Study on the Will to Continue the Lifetime Ritual in North Korea's Living Culture. *Humanities, 86.*
DOI : 10.21185/jhu.2021.06.86.5

[39] K. R. Han. (2021). Changes in Elder's Lives and Death by COVID-19. *Journal of Ethics, 1(133).*
DOI : 10.15801/je.1.133.202106.171

[40] D. G. Kim. (2021). The Discussion on the Venue and Performance of the Ancestral Farewell Rite and Its Significance. *Korean Studies Quarterly, 44(2).*
DOI : 10.25024/ksq.44.2.202106.121

[41] Y. J. Kim. (2021). The Funeral of Gasungung and Discussion of Mourning system in The Age of King Sunjo — focused on "Gasungung

sangyemundap" of Tasan Jeong Yak-yong. *Journal of Tasan Studies, 38.*

[42] Y. H. Kim. (2021). Practice and Change of Food and Shelter Regulations in 『Garye』 Viewed from 『Mukjae's Diary』 during the Mourning for Mother. *Korean Folklore, 73.*
DOI : 10.21318/TKF.2021.5.73.73

[43] J. H. Shin. (2020). Jang Hyeon-Kwang's View of Mourning and Ancestral Rit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1592). *Korean Silhak Review, 40.*

[44] M. S. Kim & C. M. Park. (2021). A Study on Transmission and Procedure of the Baegam-san National Ritual in Jangseong-gu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25(4).*
DOI : 10.34272/forest.2021.25.4.007

[45] M. Y. Kim. (2021). The Norm and Naturalization of Ancestral Ritual Food- Focused on Bulchunwee Rites. *Korean Studies, 45.*
DOI : 10.36093/ks.2021..45.009

[46] J. A. Choi. (2021). Interpretation of Multivalency in Death Rite Material Culture -Focusing on shamanism in view ofcultural histor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lklife, 60.*
DOI : 10.22792/jkhf.2021..60.008

[47] M. Y. Kim. (2020). Everyday Life and Rites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17th Century -Focused on the Modang Journals-. *Namdo Folkore, 41.*

[48] S. N. Jang. (2020). A Study on Yeogwans of Baekje. *BaekjeHakbo, 34.*

[49] E. S. Lee. (2021). African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Church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Culture. *Journal of Historical Theology, 39.*

[50] J. L. Lee. & S. W. Park. (2021). The Role Structure of Saemaul Officials in the 1970s: A Topic Modeling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Data.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5(4).*
DOI : 10.18398/kjlgas.2021.35.4.45

[51] T. J. Lee. (2021).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the Culture of "Korean-style" Development Aid: Focusing on the Global Saemaeul ODA and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54(3).*

[52] C. Guilian, C. Li & Wei Xin. (2021). Research Characteristics of Chinese Papers on Saemaul Movement in South Korea Using CiteSpace: Focused on Enlightenment of Rural Revitalization.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7(3).*

[53] W. Y. Jung. (2021).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Saemaul Undong Globalization Project in Gyeongsangbuk-do.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52.*

[54] M. Han, S. M. Yun, H. J. Choi & O. H. Kwon. (2022). The Influence of Characters' Aesthetic Elements on Viewing Engagement and Re-viewing Intention: Focusing on the Chinese historical TV series 'The Story of Yanxi Pala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69

[55] D. R. Kim, K. H. Kang, Arma Park, C. H. Lee & K. H. Kim. (2021). An Integrativ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96.*
DOI : 10.5762/KAIS.2021.22.3.190

[56] M. S. Kim. (2020). Mandatory Retirement, Ageism, Well-aging.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8, 39.*

[57] H. S. Kim. (2020. December). Well-dying's institutional plan. *The fanatic thesis, 30, 212-213.*

[58] Y. J. Oh, K. I. Cha & Y. H. Jun. (2020). Effects of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and Repulsion Related Nursing Home Use on the Well-Dying of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2(3), 236.*
DOI : 10.7475/kjan.2020.32.3.235

[59] H. J. Moon & H. R. Choi. (2022).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Intensive Care Unit Health Care Providers with Intensive Care Unit Clinical Nurse Expert's Rol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79

[60] S. H. Lee, J. J. Lee & O. C. Choi.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nity Spirit of Korean Society: Focusing on Hyangyak, Dure and Saemaul Spirit.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23(3).*

[61] K. T. Song. (2018). Comparison of Traditional Labor Communiti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cusing on the Dure in Farming Villagesand the Kangbun in Fishing Villag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65.*

[62] E. H. Oh, Y. M. Song, H. J. Kim, S. Y. Nam, Y. K. Kim & E. H. Song. (2022). Job Analysis of The COVID-19 Care Unit's Nurses Using DACUM Method.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781

[63] H. G. Cha & H. S. Kim. (2022). Factors Affecting the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On-line-Based Education by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459

[64] K. A. Kim. (2022). Relationship between Job Burden, Job Stress Coping Level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at Local Hub Hospital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1).*
DOI : 10.15207/JKCS.2022.13.01.489

[65] L. Y. Jeong, Y. S. Kim & G. H. Park. (2022). The Effects of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of Pregnant Women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587

[66] E. H. Jang. (2022).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Workers with Diabetes Mellitus-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1).*
DOI : 10.15207/JKCS.2022.13.01.477

[67] J. O. Lee & S. H. Yoon. (2022).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Sleep and Fatigue Symptoms among Manufacturing Male Worke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641

[68] S. Y. Kim & S. I. Kim. (2022). A Study on Ways to Relieve User's Anxiety Caused by Simplification of Easy Money Transfer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293

[69] K. S. Jeong. (2022).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3rd gra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91

[70] J. S. Park & S. J. Park. (2022). Communication Typ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35

[71] H. A. Cho & K. M. Sung. (2022). The experience of Long term Care Hospital Workers on Sexual Behaviors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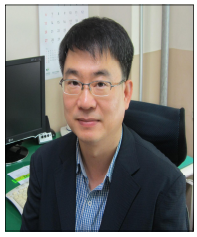
[72] J. S. Ma. (2022). Influence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n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570

[73] B. M. Kim. (2022). Factors Affecting the Stroke related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Middle-Aged Adul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349

[74] K. Y. Yang et al. (2022). Comparative of welfare level of animal welfare certified farms and general group housing farm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1).*
DOI : 10.5762/KAIS.2022.23.1.578

[75] J. R. Han. (2022). The Mediated Effects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DOI : 10.14400/JDC.2022.20.1.437

박 아 르 마(Arma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학비평, 번역학,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parkarma@konyang.ac.kr

송 현 동(Hyeon-Dong Song)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죽음학, 종교문화
· E-Mail : ritual@konyang.ac.kr

권 온 (On Kwon) [정회원]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웰다잉, 웰에이징, 융합 연구, 문학
· E-mail : 02kwon@hanmail.net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kkh@konyang.ac.kr